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5월 7일

제07-23호

일본 · 태국 EPA의 내용 및 시사점

김한성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3460-1087)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jhlee@kiep.go.kr, Tel; 3460-1134)

주요 내용

- ▣ 태국과 일본은 2007년 4월 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일·태국 외교수립 120주년 기념식에서 양국간의 「경제적 동반자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정식 서명함.
- ▣ 일·태국 EPA가 발효되어 일본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인하가 이루어지면 이는 한국의 對 태국 주요 수출품목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따라서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한·ASAEN FTA 상품협상에서 태국과의 양자협의를 조기에 종결하여 태국시장내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은 태국과 양허안을 교환함에 있어 일·태국 EPA 협정문 내용을 고려하여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 특히 일·태국 EPA를 통해 일본산 자동차부품이 관세인하됨에 따라 제3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태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이를 고려하여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 본고에서는 일·태국 EPA 타결 내용을 중심으로 본 협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1. 머리말

- 태국과 일본은 2006년 4월 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일·태국 외교수립 120주년 기념식에서 양국간의 「경제적 동반자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정식 서명함.
- 2006년 촉발된 정치 불안으로, 진행 중이던 모든 FTA 서명을 일시적으로 중단 조치한 태국은 그 후 처음으로 일본과의 EPA에 서명함으로써, 다른 지역 및 국가와의 FTA 협상과 서명 작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을 시사함.
- 따라서 연기하였던 한·ASEAN FTA 서명에도 곧 착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함.
- ASEAN 전체와 FTA를 추진하는 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이어 태국과 EPA를 체결하여 ASEAN 주요국과의 양자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줌.
- 일본은 현재 ASEAN 주요국 중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와 양자간 협상을 진행 중임.
-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는 태국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일본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최근 ‘TVT(터키·베트남·태국)’로 지목되면서 Post-BRICs 국가로 주목받고 있음.
- 태국은 이미 일본 메이저 자동차업체들이 진출해 현지생산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해외 자동차 생산기지로, 최근 태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 등에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특혜 관세혜택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향후 일본 자동차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일본은 지난 1985년부터 2004년까지 태국의 최대 외국자본 유입대상국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본 협정이 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양국은 향후 10년간 90% 이상의 관세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그러나 일·태국 EPA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농축수산물 품목에 매우 민감한 일본의 입장에서 관세장벽 철폐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여겨짐.
- 자국 농축수산물 품목을 보호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공산품에 편중하여 태국의 양허를 인정한 비대칭적인 상품개방 형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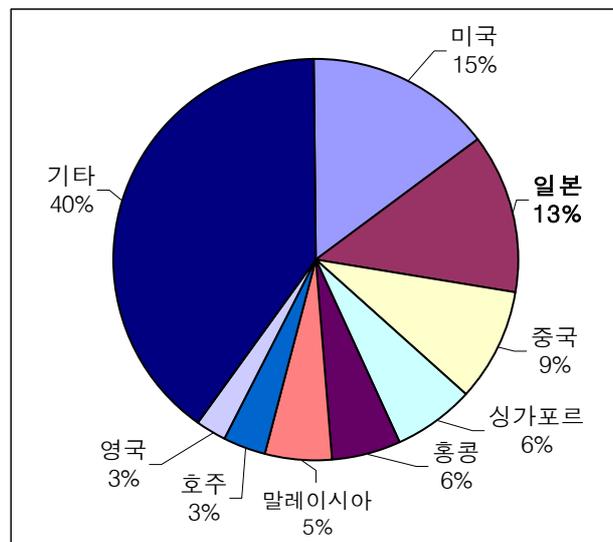
- 본고에서는 일·태국 EPA 타결 내용을 중심으로 본 협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2. 일·태국 경제관계 및 EPA 주요 타결 내용

가. 일·태국 교역 및 투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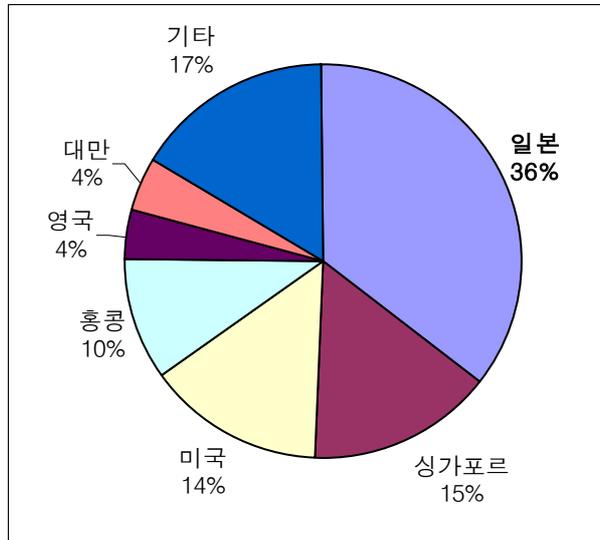
- 태국은 일본에 있어 ASEAN 회원국 중 최대 수출대상국인 동시에 주요 투자 진출국이며, 일본은 태국 제2위 수출시장임.
 - 2006년 일본의 對태국 수출은 총 2조 6,600억 엔으로 총수출의 3.54%였고, ASEAN 10개 회원국에 대한 수출 중 태국이 30%를 차지하여 일본 6대 수출국이자 ASEAN 최대 수출국으로 나타남. 또한 태국의 2006년 對일본 수출은 총 165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일본이 태국의 제2위 수출시장이 되고 있음.
 - 1985년부터 2004년까지의 20년간 일본은 태국에 총 183억 달러를 투자하여 對태국 투자 2위인 싱가포르를 2배 이상 앞서면서 제1 투자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음.
 - 일본은 ASEAN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둘째로 크게 투자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태국에 진출해 있음.

그림 1. 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2006년도)



자료: 태국 중앙은행(www.bot.or.th)

그림 2. 태국 외국인투자 유입의 국가별 비중: 1985~2004년도 누적 기준



주: 같은 기간 한국의 對태국 투자는 총 4억 9천만 달러로 일본 누적투자액의 약 2.7%에 불과함.
 자료: 태국 중앙은행(www.bot.or.th)

나. 주요 협정 내용

- 일본의 FTA 정책은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 농수산물 품목을 보호하는 상품협상 외에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서 지적재산권과 투자규범의 강화를 중시하고, FTA를 지역정책을 위한 포괄적인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¹⁾
- 상품분야의 개방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적 동반자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이에 따라 일·태국 EPA는 관세의 철폐·인하 외에도 상호인증,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농림수산업, 교육 및 인적자원의 개발, 경영환경 개선, 금융서비스, ICT, 과학기술 및 에너지 환경, 중소기업, 관광, 교역·투자 등 총 9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이해를 명시하고 있음.
- EPA 체결과 함께 양국 농림수산부 장관간에는 음식물 안전성을 포함하는 관련 분야 경제협력 선언이 이루어졌고,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과 태국 재무부 장관간의 7개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선언문도 발표됨.²⁾

1) 김양희(2006), 「일본의 FTA 정책의 특징과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 다음에서는 일·태국 EPA의 주요 협상 내용 중 일본 농업부문 개방과 태국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양국간 인력이동에 관한 협상 결과를 살펴보도록 함.

일본 농업부문 개방

- 일본과 ASAEN국가들이 맺은 다른 EPA와 마찬가지로 일·태국 EPA에서 일본은 자국이 비교열위인 농업부문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개방을 실시함.

- 그러나 제한적인 양허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은 자동차를 포함하는 對태국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폭넓은 관세철폐를 이끌어내지 못함.

- 일본 양허안에 따르면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HS 1~15류 품목 중 양허제의 품목이 약 1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후 재협상하기로 합의한 품목도 약 13%에 이룸.³⁾

- 반면에 즉시 철폐 34%, 점진적 철폐 32%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총 66% 정도이며 기타 TRQ의 적용을 받는 품목과 관세인하 적용을 받는 품목도 소수 있음.

- 품목별로는 곡물류(HS 10류)의 경우 쌀, 보리, 밀 및 메슬린은 양허제의 품목으로 분류되었고, 귀리, 옥수수, 호밀 등은 즉시 철폐 품목에 포함됨.

- 밀가루 등 곡물의 분과 및 전분을 포함하고 있는 HS 11류의 경우에도 매니옥과 바나나 파우더 일부의 경우에만 즉시 철폐가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품목이 10~15년에 걸친 점진적 철폐나 양허제의 품목으로 분류됨.

- 쇠고기(HS 0201~0202)의 경우에도 양허제의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포함하는 가금류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즉시 철폐함.

2) 철강산업 협력계획(Steel Industry Cooperation Programme), 세계의 주방 프로젝트(Kitchen of the World Project), 자동차 인력자원개발원 프로젝트(Automo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에너지 절약(Energy Conservation), 가치창조 경제(Value-creation Economy), 섬유·의류 협력(Textile and Apparels Cooperation) 및 공-사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등 7개의 경제 협력 사업이 발표됨.

3) 일·태국 EPA의 관세 철폐·인하 스케줄은 주로 HS 6단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품목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계획을 작성하거나 HS 4단위에서 제출한 품목도 있음. 본 연구의 통계는 즉시 철폐, 점진적 인하, 양허제의 품목 등을 일본 양허안의 내용 중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 이는 일본의 총 관세품목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어패류(HS 3류)의 경우도 많은 품목을 양허제외 및 5년 후 재협상 품목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EPA 협상에서 제외함.
- 전체적으로 일본이 제시한 양허안은 자국의 취약 산업을 보호하려는 일본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채소류(HS 7류), 꽃·산수목류(HS 6류), 기타 동물성 생산물(HS 5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쌀, 쇠고기 등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함.
- 그러나 일본이 보호하려고 했던 과일 및 견과류(HS 8류)에서 사과, 배, 딸기 등의 관세를 점진적 철폐하기로 약속하였고, 일본에서 생산량이 적은 열대과실류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태국의 입장을 반영함.

표 1. 일본의 농축수산물 품목 관세 철폐 · 인하 스케줄

HS 분류	즉시 철폐	점진적 철폐	관세인하	TRQ	재협상	양허제외
1류 산동물	12	-	-	-	-	5
2류 식용설육	27	3	3	-	15	9
3류 어패류	22	67	1	-	33	59
4류 낙농제품	2	4	-	-	6	12
5류 기타 동물성 생산물	1	-	-	-	-	-
6류 꽃·산수목류	1	-	-	-	-	-
7류 채소류	38	48	3	-	-	6
8류 과일·견과류	29	40	-	3	3	1
9류 커피·차	18	7	-	-	2	-
10류 곡물	11	1	-	-	1	4
11류 곡물의 분과	2	18	-	-	5	17
12류 채유용 종자·인삼	20	1	-	-	1	6
13류 식물성 엑스	9	2	-	-	2	-
14류 기타 식물성 생산물	6	1	-	-	-	-
15류 동식물성 유지	20	9	2	-	16	-

주: 양허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으로 주로 HS 6단위로 되어 있으나 품목에 따라 HS 4단위 혹은 6단위 이상으로 세분화된 품목도 포함하고 있음.

자료: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Kingdom of Thailand for an Economic Partnership, Annex 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인력이동

- 일·태국 EPA 협정문 부속서 7은 양국간의 인력이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
- 일본은 태국 기업인에 대한 90일간의 임시체류, 지사 업무 혹은 엔지니어링과 같은 숙련기술자에 대한 1년 혹은 3년간의 입국 및 임시체류 등 일반적인 조항 외에도 태국인에게 특징적으로 적용되는 임시체류 및 경영활동에 대한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우선 태국인의 일본내 투자 관련 활동 및 투자에 따르는 영업행위를 위한 입국 및 체류에는 연장이 가능한 1년 또는 3년간의 임시체류를 허가함. 특히 이같은 투자는 태국의 스파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태국의 법률, 회계 및 세무 서비스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조건의 임시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태국요리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
 - 단, 태국요리사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과 NSS Level 1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일본 입국 직전 1년간 '적절한 수준의 임금' 을 받으며 태국요리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⁴⁾
 - 태국 전통춤, 음악, 요리, 태국 복싱, 태국어 및 태국식 스파를 가르치는 강사에게도 연장이 가능한 1년 또는 3년간의 입국 및 임시체류를 허용하도록 합의함.
- 일본과의 협상에서 태국정부는 마사지사(spa therapist)와 간병인(careworker)의 일본내 경제활동을 허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그러나 일·태국 EPA 합의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향후에 논의하기로 함.
 - 부속서 7의 제6조 C항에 따르면, 일본과 태국 양국은 협정문 제120조에 언급한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소위원회(Sub-Committee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에서 태국 간병인의 일본내 활동에 대한 허용 문제를 협정 발효로부터 1년 혹은 늦어도 2년 이내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한다고 규정함.
 - 태국 마사지사의 일본내 영업허용 문제도 협정 발효 2년 이내에 합의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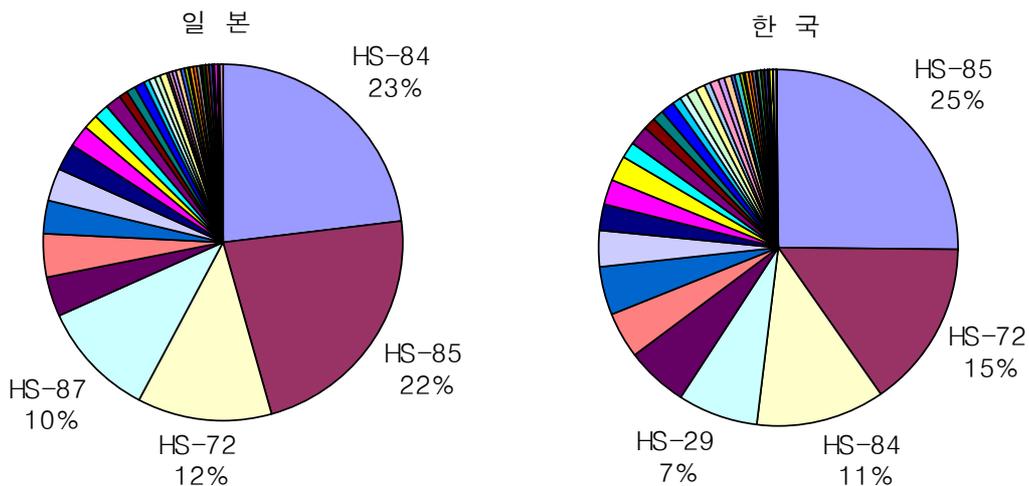
4) 부속서 7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처럼 양국의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태국인의 일본내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으며, 태국 간병인과 마사지사의 문제는 협정 체결 후 계속 논의하도록 하는 원칙만 합의한 채 협상을 완료함.
- 일·태국 EPA를 통해 태국요리사와 강사 등 일부 분야에서 태국인의 일본 진출의 길이 열렸으나 태국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협상을 통해 간병인과 마사지사의 일본 임시체류가 추가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됨.

3. 일본제품에 대한 태국 관세 철폐 및 인하: 한·일 수출 경합 부문을 중심으로

- 일본의 對태국 수출은 HS 84류(원자로·보일러·기계류), 85류(전기기기류), 87류(자동차류), 72류(철강)가 주된 품목을 이루고 있음.
- 수출금액 기준으로 HS 84류가 약 23%, 85류가 약 22%, 87류가 약 10%, 72류가 약 12%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미 태국에 많은 투자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최종재보다는 자국 투자 진출기업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가 對태국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3. 한국 · 일본의 對태국 수출품목 구성(2006년, HS 2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HS 85류(전기·전자기기류), 84류(원자로·보일러·기계류), 72류(철강), 29류(유기화합물)가 對태국 주요 수출품목임.

- 한국의 對태국 수출은 HS 85류가 약 25%, 72류가 약 15%, 84류가 약 11%, 29류가 약 7%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일본의 對태국 수출품목 구조와 유사함.

- 한편, 한국의 對태국 수출구조는 일본에 비해 84류의 비중이 다소 낮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對태국 수출이 기계·자동차보다는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음.
-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산 자동차의 태국시장 판매실적이 ASEAN 6로 불리는 ASEAN 선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임. 특히 다른 ASEAN 6 국가들과 시장규모, 인구 등을 고려할 경우 태국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여겨질 만큼 차이를 보임.

- 일·태국 EPA 체결에 따른 일본의 對태국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인하 계획과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의 對태국 수출액 및 수출비중은 [표 2]에 정리함.

표 2. 일본의 對태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에 대한 태국의 관세 철폐 · 인하 계획 및 일본과 한국의 對태국 수출액 · 비중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명	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1	854221	전자기판부품류	35%	-	-	-	-	-	-	-
2	870840	자동차 기어박스류	6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	721049	기타 평판압연제품류	20%	7.00	5.00	5.00	5.00	5.00	5.00	5.00
4	847989	개별성능 기계류	30%	-	-	-	-	-	-	-
5	854229	기타회로부품류	35%	-	-	-	-	-	-	-
6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35%	-	-	-	-	-	-	-
7	840991	불꽃점화식 내연기관부품	3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8	847330	자동차료처리기계의 부품	40%	-	-	-	-	-	-	-
9	852990	라디오 송수신기의 부품류	60%	-	-	-	-	-	-	-
10	720839	3mm 미만 평판압연제품	15%	-	-	-	-	-	-	-
11	853400	인쇄회로	35%	7.50	5.00	2.50	-	-	-	-
12	852320	비저장 마그네틱디스크	60%	-	-	-	-	-	-	-
13	848071	금형주조용 주형틀	30%	4.17	3.33	2.50	1.67	0.83	-	-
14	720918	0.5mm 미만 평판압연제품	17%	제품의 두께에 따라 즉시 철폐부터 10년차 철폐까지 다양						
15	720838	3~4.75mm 평판압연제품	15%	-	-	-	-	-	-	-
16	853890	전기회로 개폐용기기부품	35%	8.33	6.67	5.00	3.33	1.67	-	-
17	840999	압축점화식 내연기관부품	3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8	840820	차량용 압축점화식 엔진	3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9	870829	자동차부품류	6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	870600	차량용 새시류	80%	28.18	26.37	24.53	22.73	20.91	19.09	17.27

[표 2] 계속.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명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일본		한국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	854221	전자기관 부품류	-	-	-	-	1,049	4.58	201	4.73
2	870840	자동차 기어박스류	30.00	30.00	30.00	30.00	489	2.13	1	0.02
3	721049	기타 평판압연제품류	5.00	2.50	-	-	464	2.02	66	1.55
4	847989	개별성능 기계류	-	-	-	-	418	1.83	31	0.73
5	854229	기타회로부품류	-	-	-	-	393	1.72	10	0.24
6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	-	-	-	391	1.71	2	0.05
7	840991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부품	15.00	15.00	15.00	15.00	379	1.65	3	0.07
8	847330	자동차료처리기계의 부품	-	-	-	-	339	1.48	17	0.40
9	852990	라디오 송수신기의 부품류	-	-	-	-	291	1.27	299	7.04
10	720839	3mm 미만 평판압연제품	-	-	-	-	226	0.99	12	0.28
11	853400	인쇄회로	-	-	-	-	219	0.95	23	0.54
12	852320	비저장 마그네틱디스크	-	-	-	-	197	0.86	-	-
13	848071	금형주조용 주형틀	-	-	-	-	193	0.84	34	0.80
14	720918	0.5mm 미만 평판압연제품	제품의 두께에 따라 즉시 철판부터 10년차 철판까지 다양				189	0.82	6	0.14
15	720838	3-4.75mm 평판압연제품	-	-	-	-	187	0.81	5	0.12
16	853890	전기회로 개폐용기기부품	-	-	-	-	183	0.80	4	0.09
17	840999	압축점화식 내연기관 부품	15.00	15.00	15.00	15.00	180	0.79	3	0.07
18	840820	차량용 압축점화식 엔진	20.00	20.00	20.00	20.00	175	0.76	-	-
19	870829	자동차 부품류	20.00	20.00	20.00	20.00	167	0.73	1	0.02
20	870600	차량용 새시류	15.45	13.64	11.82	10.00	166	0.73	-	-

주: 일본 對태국 수출액은 엔화로 추산된 자료를 2006년 연평균 환율 116.341로 환산하여 계산함.

자료: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Kingdom of Thailand for an Economic Partnership, Annex 1에서 발췌·정리

- 먼저 자동차(87류)의 경우 HS 870840(기어박스 및 부품), HS 870829(기타 차체 부속품)는 각각 30%와 20%의 고관세를 유지하며 HS 870600(엔진을 갖춘 새시)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지만 최종적으로 10%의 고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이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에서 완전한 관세철폐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이번 협정에서 완성차보다는 자동차부품의 관세철폐에 주력하여 태국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일본의 목적이 완전히 성공적이지는 못함을 시사하는 것임.
- 그러나 태국이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일·태국 EPA는 태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양국은 2010년 중반 시작될 3000cc 이상 일본 대형차에 대한 관세철폐를 2009년부터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또한 태국이 향후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의 FTA 협상에서 일본에 양허한 조건 이상으로는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 중 보일러 및 기계류를 포함하는 HS 84류의 경우 즉시 철폐(HS 847989, 847330), 점진적 철폐(HS848071), 관세인하(HS 840991, 840999, 840820)로 나누어짐.
- 전기·전자제품인 HS 85류의 대부분은 관세를 철폐하여 EPA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로 태국 수출이 가능하게 되며 HS 853400, 853890의 경우에도 모두 협정 발효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철강제품(HS 72류)의 경우 품목에 따라 즉시 철폐(HS 720838, 720839)나 점진적 철폐를 계획하고 있음.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일·태국 EPA가 발효됨에 따라 일본의 對태국 수출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인하가 진행되는 반면, 한·ASEAN FTA에서 한국과 태국간의 관세 철폐 및 인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한국의 對태국 주요 수출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對태국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기계류에서 일본과 대부분 최소 10% 이상, 최대 60%까지 관세 차이가 나게 되므로 수입선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바뀌는 즉각적인 무역 전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한·ASAEN FTA 상품협상에서 태국과 양자협의를 조기에 종결하여 태국시장내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태국과 양허안 교환시 일·태국 EPA 협정문 내용을 고려하여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일본기업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주요 수출품목에서 관세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일·태국 EPA를 통해 이루어진 일본산 자동차부품의 관세인하는 태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므로, 앞으로 제3국 시장내에서 일본과 한국 자동차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함.
- 태국정부는 태국을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육성한다는 전략하에 자동차 생산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도요타, 닛산, 스즈키 등 일본 메이저 회사를 포함한 15개 외국 자동차기업이 태국에 진출해 2005년도에는 총 1백 12만 5천여대(픽업 및 버스 포함)를 생산하였고, 수출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임.
- 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관세인하에 따라 향후 ASEAN시장 및 태국과 FTA 협정을 맺은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의 국가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표 5. 태국의 자동차 생산 및 수출 현황

(단위: 대)

연도	총생산	승용차 생산						수출
		1201~1500cc	1501~1800cc	1801~2000cc	2001~2400cc	2401~3000cc	3001cc 이상	
2000	411,721	28,811	44,700	6,651	14,753	2,214	-	152,835
2001	459,418	31,713	72,788	23,376	25,887	2,302	-	175,299
2002	584,951	36,407	77,203	25,661	27,700	2,348	2	181,471
2003	750,512	127,505	77,082	11,711	28,214	7,090	82	235,122
2004	928,081	154,308	86,005	22,745	30,426	5,916	39	332,053
2005	1,125,316	135,013	93,248	18,738	25,531	5,037	36	440,705

주: 총생산과 수출은 픽업트럭 및 버스 등 모든 차량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Thailand Automotive Institute(www.thaiauto.or.th)

-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